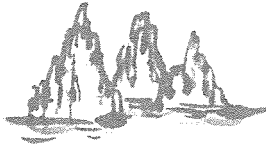


오가피

도 상 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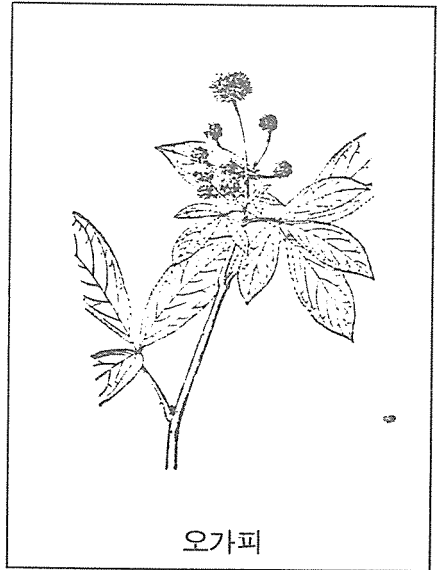


오가피나무는 세계적으로 *Acanthopanax Sessilifloriceuwseem* (Araliaceae 오갈피 나무과) 라고 부르고 생약명은 五加皮 *Acanthopanax cortex Radicis* 라고 한다.

오가피나무는 산지에 흔히 자라는 낙엽관목으로서 높이 3~4m에 달하며 뿌리 근방에서 가지가 많이 갈라져서 사방으로 퍼진다.

小枝는 회갈색으로서 지름이 3~4mm 이고 털이 없고 가시가 있는것도 있고 종에 따라 없는것도 있다.

잎은 호생하며 3~5소엽으로된 장상복엽이다.



오가피

소엽은 도란형 또는 도란상 타원형 점첨두 실저로서 길이 6~15cm이며 가는 이중톱니가 있다.

표면은 녹색이며 털이 없고 뒷면은 담록색으로 맥상에 잔털이 있다.

엽병은 길이 3~6cm이다.

산형화서는 가지끝에 달리며 취산상으로 배열된다.

소화경은 짧다.

꽃은 8~9월에 피며 자주빛이 돌고 꽃받침 잎은 삼각형으로 겉에 밀모가 있다.

꽃잎은 타원형으로 5개이고 화주는 끝까지 합쳐져 있다.

장과는 타원형으로 약간 편평하고 길이는 10~14mm, 지름이 3~4mm로서 10월에 익는다.

어린순을 나물로 하고 뿌리껍질을 약용으로 쓰인다.

특히 이 오가피는 인삼과 같은 과에 속한 식물로 옛부터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또 근래에 인삼보다 좋다고 하는 가시오갈피, 왕가시오갈피나무도 같은 과에 속하고 있다.

오가피나무의 뿌리 유효성분은 Sesamin, Savinin을 비롯하여 lignan 배당체인 acanthoside A, B, C, D, daucosterol이 알려져 있고 그밖에 polyacetylene- β -Sitosterol, Stigmasterol, Campesterol 등이 알려져 있다.

중부오갈피에서는 liridendrin이 분리되었다.

잣 정유, Vitamin A, B를 함유하고 있다고 전하여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오갈피나무의 종이 6개 이상이나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가시오갈피나무와 왕가시오갈피나무는 귀하면서 문제가 되는 식물이다.

가시오갈피나무의 뿌리에서는 elutheroside A : daucosterol, elutherosi-

de B, suringins clutheroside E, syringaresinal, diglucoside, 그 밖에 β -Sitosterol, Stigmasteral, cholesterol, polyacetylene 등이 알려져 있다.

이 가시오갈피나무는 각 성분에는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뿌리의 자체 효과를 인삼과 비교하면 가시오갈피 나무의 경우 56, 인삼은 67이다.

노동력의 증가에 있어서는 25% 향진이 된다.

그밖에 성선자극 발기부전증, 혈당저하작용, 당뇨병, 동맥경화 항암작용 등이 알려져 있다.

성미는 맛이 맵고 성은 온화하며 독이 없다.

현재까지 알려진 오가피의 약효는 강장약(強壯藥), 강정(強精), 소아삼세불능(小兒三才不能行), 익정(益精), 요통(腰痛) 장근골(壯筋骨), 중풍(中風) 성력회복(性力回復) 근육을 튼튼히하고 신경통 하지무력(下肢無力) 등이 효과가 좋다고 하여 옛부터 많이 사용되어 왔다.

오가피를 한방에서는 일종의 강장작용을 가진 진통제라고 알려져 있다.

임상응용면으로 보면 만성관절 rheumatism, 근는 rheumatism에 사용한다. 허반신에 주로 작용한다.

요통, 손발이 차며 아플때 보약을 배합하여 술에 담귀 五加皮酒로 마신다.

어린이 발육이 늦은아이를 치료하는데 좋으며 이 처방은 오가피 15g 우실 8g, 기생 8g, 녹란 8g 을 연마하여 메취 15g 씩 복용한다.

현재 오가피차의 재료는 오가피나무의 잎과 근피이다.

잎을 여름에 상성한 시기에 채취하여 열탕에 살짝 데쳐 그늘에서 말린다.

근피는 여름에 뿌리를 캐어 물에 씻어 걸썩질을 긁어버리고 썰어 말린다.

잎과 근피를 따로 종이봉지에 넣어 습기없는 장소에 매달아 두고 쓴다.

근피는 건재상에서 구입할 수 있다.

잎의 차분량을 하루에 10~15g을 물 500cc에 넣고달여 하루에 2~3회씩 마신다.

근피의 경우는 차분량을 하루에 15~20g을 물500cc에 넣고 달여 하루에 2~3회 마신다.

흑설탕이나 벌꿀은 1스푼씩 타서 마셔도 좋다.

오가피酒는 잘 마른 오가피를 0.5cm 정도로 잘라 100g을 병에 넣은다음 감미료인 설탕 200g을 넣은 뒤 최후로 소주 500cc를 넣는다.

병마개를 잘 막고 저장하여 두면 1개월후에는 약의 성분이 전부 침출된다. 이것을 가는체로 걸르면 깨끗하며 맛좋은 술이 된다.

이 술은 언제까지 두어도 결코 맛이 변하지 않고 썩지도 않는다.

이 술은 중국에서는 수백년전부터 즐겨 쓰고 있을 뿐 아니라 보건강장의 술로서 인기가 높ی 평가되고 있다.

이 오가피酒는 일본에서도 알려진 술이며 중국에서는 양조장에서 도수 높은

오갈피의 술로 제조되어 판매되기 때문에 영구 보존해도 하등의 변질이 없다. 민간적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이나 중병후의 회복기에는 노인이 하루에 30~40cc 정도를 마시는 것이 좋다고 했고 건강한 사람이 정력제로 먹고져 할때는 하루에 50~70cc 정도를 이틀에 나누어 먹는 것이 좋다고 했다.

술에 약한 사람은 주스나 소다수로 적당히 희석시켜서 먹어도 효과는 있다고 했다.

그러나 간과 신장이상이 있을 때에는 마시지 않는것이 좋다.

어린이가 잘 걷지 못할때는 오갈피 18g, 우술10g, 목피10g을 분말로 만들고 1g의 미음에 술3방울을 떨어뜨려 먹인다.

즉 소아마비아이에 좋다.

단독(丹毒)에는 오갈피잎을 태워 재를 물에 개어 바른다.

오갈피의 처방에는 오갈피8g, 지골피2g, 감초18g을 잘게 썰어 대추2~3개와 함께 물2홉에 넣고 불에 달여 1/3 가량을 줄여서 하루에 2~3회 마신다. 때에 따라 벌꿀을 타면 좋고 식전 식후 언제나 마셔도 좋다.

본초경을 비롯한 옛 문헌에 의하면 오갈피를 많이 오래 먹으면 몸이 가벼워지고 장수한다고 했다.

(필자=동덕여대 보건소장·교수)

■ 사회정화표어

밝은 직장 웃는 얼굴, 직장 발전 나의 발전

■ 한국기생충박멸협회

■ 한국건강관리협회